

개인 의료기관에 내원한 고혈압 및 당뇨병환자에게 실시한 건강교육이 치료 순응도에 미치는 영향

이태용*, 김광환*

*건양대학교

The Effects of Health Education on Treatment Compliance of Patients with High Blood Pressure and Diabetes in Private Clinics

Tae-Yong Lee*, Kwang-Hwan Kim*

요 약

고혈압과 당뇨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일정한 보건교육이 치료순응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2007년 9월부터 2008년 2월까지 대전시에 내과 및 가정의로 개업하고 있는 의료기관중 본 연구의 취지에 동의한 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 1,213명에 대하여 2회 설문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자 1,213명 중 고혈압만 있는 환자가 49.2%, 당뇨만 있는 환자는 26.3%, 고혈압과 당뇨병을 동반하고 있는 환자는 22.4%이었으며, 성별에는 차이가 없었다.

1. 서 론

고혈압과 당뇨병 관리는 환자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 지역사회의 공동 노력을 필요로 한다. 이를 통해 질병 및 합병증의 발생을 예방함으로써 효과적인 관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건강관리에 대한 인식과 기술 및 실천 능력이 부족하여 질병이 효과적·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지 못하다. 효과적인 고혈압 및 당뇨병관리를 위해서는 치료순응도를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약물 복용을 규칙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못된 생활습관을 교정하여 혈압과 혈당을 더 잘 조절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개인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고혈압 및 당뇨병 환자들의 치료순응도를 확인하고, 이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대전시내 내과 및 가정의학 개원의 중 대전시 만성

질환관리사업에 참여의사를 밝힌 의료기관 내원 환자들에게 표준화된 교육내용을 제공한 후 혈압 및 혈당의 조절여부와 생활양식의 변화를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는 우리나라의 고혈압 및 당뇨병 관리 사업의 효과적인 운영과 이와 관련된 사업의 확대를 위해 만성질환과 보건교육 관련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1. 조사기간 및 대상

조사기간은 2007년 9월부터 2008년 2월까지 5개월간이다. 조사대상은 만성질환관리사업에 참여의사를 밝힌 대전지역 92개 의료 기관으로 하였다.

조사대상 환자 총 1,213명 중, 고혈압 622명(51.3), 당뇨 319명(26.3) 및 고혈압과 당뇨 272명(22.4)으로 나타났다(표 1).

[표 1] 조사대상

단위 : N(%)

성 별	남자	여자	합 계
상병명			
고혈압	326(53.3)	296(49.2)	622(51.3)
당뇨	154(25.2)	165(27.4)	319(26.3)
고혈압 & 당뇨	131(21.5)	141(23.4)	272(22.4)
합 계	611(100.0)	602(100.0)	1,213(100.0)

2. 연구방법 및 내용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의 치료순응도와 생활습관을 측정할 수 있는 조사표를 작성하였다. 조사표를 토대로 대전시 만성질환관리사업에 참여의사를 밝힌 92개 내과 및 가정의학 의원 내원환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조사하였고 일부 자료는 의료기관의 간호사가 조사하였다.

조사표는 개인의원의 원장용과 환자가 스스로 대답할 수 있는 환자용으로 구분하였다. 원장용 조사표에는 성별, 연령, 병원 차트번호, 상병명, 혈압 및 혈당 측정치, 허리둘레, 신장, 몸무게 등과 같은 인구사회학적 변수와 혈압과 혈당 관련 측정치, 비만도를 계산하기 위한 변수들이 포함되었으며, 교육관련 변수로 교육 내용, 교육에 대한 환자의 태도, 비약물적 치료방법의 이행 여부, 혈압 및 혈당 조절 여부 등이 포함되었다. 환자용 조사표에는 생활습관으로서의 운동, 식이, 흡연, 음주, 체중조절 등과 관련된 변수와 약물 복용의 규칙성에 대한 변수를 포함하였다.

치료순응도를 측정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담당의사의 평가, 환자의 자가 보고를 이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부호화하여 엑셀에 입력 하였고, 통계처리는 윈도우용 SPSS (Statistical Program for Social Science; 버전 12.0)을 이용하였다.

3. 결 과

1.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조사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중, 연령별 분포는 50~59세군이 34.5%로 가장 높았고, 60~69세 28.5%, 40~49세 18.2% 순이었으며, 80세 이상군이 1.6%로 가장 낮았다.

2. 개원의 들이 생각하는 환자 자신의 질병관리 태도

개원의들이 생각하는 환자 자신의 질병에 대한 관리태도는 소극적인 관리가 56.7%로 가장 많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한다는 응답은 37.4%이었다. 성별로는 남녀 모두 소극적 관리가 각각 56.3%와 57.1%로 가장 많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3. 1년전 15초 캠페인 교육유무와 교육효과 상태

1년전 15초 캠페인 교육유무를 보면, 교육을 받았다 예로 응답한 군은 37.1%, 아니오는 50.9%로 예보다 아니오가 많았으며, 성별로도 비슷한 경향을 보

였다.

15초 교육의 효과를 보면, 있다 63.7%, 없다 32.4%로 없다보다 있다에서 많았으며, 성별로

4. 교육 후 변화

교육 후 생활 습관의 변화에 대해 아니오가 70.5%로 나타났고 변화가 있었다고 응답한 사람들 중 변화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운동이 40.7%로 가장 많았고, 싱겁게 식사가 29.1%로 다음이었다

4. 결 론

2007년 9월부터 2008년 2월까지 대전시에서 내과 및 가정의로 개업하고 있는 의료기관 중 본 연구의 취지에 동의한 의료기관 내원 환자 1,213명에 대해 설문조사를 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의료기관 방문시 실시한 교육으로는 운동이 가장 많았으며, 식이, 체중조절 등의 순으로 높았다. 환자에게 중점적으로 필요한 교육도 이와 거의 동일 하였다.
2. 개원의들이 생각하는 환자 자신의 질병에 대한 관리태도는 소극적으로 한다가 56.7%로 가장 높았다.
3. 본 연구에서 실시한 교육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63.7%로 높았으며, 생활양식으로 운동, 음식습관의 변화, 음주의 변화가 있었지만 낮았고, 체중과 흡연은 변화가 거의 없었다.

결론적으로 개원의들을 통한 교육의 효과는 있었지만, 생활습관을 바꿀 정도는 되지 못하므로 추후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보건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1] 김동현 외 7명. 우리나라 성인 남성 당뇨병의 발생양상과 위험요인에 관한 전향적 코호트 연구. 예방의학회지 1999; 32(4): 526-537

[2] 대한예방의학회. 예방의학. 계축문화사 2005

[3]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건강영양조사 제3기 (2005) - 성인이환 -. 2006. 7

[4] 이영란, 강미애, 문정숙, 김미경. 보행운동이 당뇨병환자의 혈당 및 운동에 대한 동기에 미치는 효과. 한국보건간호학회지 2001; 15(1): 172-181

[5] 이태용, 유원섭. 대전광역시 만성질환관리사업 - 고혈압·당뇨병 관리- 보고서. 2005. 9